



조간 제 802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음력 12월 25일)

광주전남,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 10곳 '공동 유치'



경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각각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전제로 한 공동 유치 대상 기관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8면

이날 제시된 핵심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광주·전남이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내세운 기관은 농협중앙회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중심지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생명 분야 핵심 기관이 자리 잡았다. 양 시·도는 농업 관련 기관이 추가 이전할 경우 정책·금융·유통 기능이 한데 모이면서 집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시켰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44GW로 전국 1위이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

한 에너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 지원에서 열에너지와 전력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난방공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이전을 제안했다. 전남은 2029년까지 말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승마산업 생태계를 조성 중이지만, 경마공원이 없는 상황이다. 마사회가 이전하면 말산업 인프라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제시했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

스 배출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은 단초

중립 기술 실증과 환경관리 정책 수행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공단 이전을 통해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는 연구 개발에서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국토교통 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산업 전환 전략과 맞물려 한국산업기술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이차전지, 페지컬 AI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산업 성과를 출생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기본사회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 경쟁력 역시 주요 요소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광주, 남도의 미식 자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상징하는 문학적 성취, 순천을 중심으로 한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은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부족한 부분은 혁신으로 보완하고, 강점은 글로벌 의제로 승화시키겠다"며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설 앞두고 북적이는 농산물공판장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1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이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글로벌 도약···2028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도전 비전 발표

"AI·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전남광주특별시가 최적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첫 도전 과제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 구상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인프라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G20 정상회의만큼은 지

방 도시에서 개최했으면 한다"고 언급 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2028년 G20 의장국을 맡는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유치 당선으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역성을 내세웠다.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항일운동, 5·18민

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온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역량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과제 앞에서 실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G20 개최지로서 상징성과 실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AI 기반 첨단산업 역량도 강조했다. 광주의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전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통합특별시를 아시아·태평양 최대 AI 거점으로 성장시킬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광주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속도

국토부 승인·고시로 사업 확정

이번 심의 통과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승인하는 단계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은 총사업비 6925억원이 투입되는 7.78km 길이의 동서축 횡단 노선으로 상무역에서 광천역을 거쳐 광주역 후문까지 연결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내·외국인 빛나는 광주 + OK! 지금은
기회도시 광주 + 전남시대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활용



시도민 소통 플랫폼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쟁 불필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플랫폼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